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6>1986년 윗세오름 ~ 서북벽 첫 '자연휴식'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25>-자연휴식년제

입력 : 2004. 09.13. 00:00:00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자연휴식년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5월 1일이다. 자연휴식년제는 국립공원내 등산로 중 해발 1700m 윗세오름대 피소에서 서북벽 정상일대까지 2km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실시되기 시작했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국립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동시에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국가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의 보전을 위해선 서식처 즉, 생태계 자체를 보호하고 이를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자연휴식년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5월 1일이다. 자연휴식년제는 국립공원내 등산로 중 해발 1700m 윗세오름대피소에서 서북벽 정상일대까지 2km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실시되기 시작했다.

탐방객의 집중적인 이용증가로 국내의 모든 국립공원은 극심한 훼손으로 생채기를 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도 인위적·자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훼손이 초래돼 왔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수많은 자연자원을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보존할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여가선용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한라산은 1970년대 이후 이용객의 급증 및 체계적인 보호의 미흡으로 극심한 훼손과 등산로 주변의 식생훼손범위도 급속한 확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한라산 상징인 정상부 백록담 일대는 과밀등산과 풍화작용 등으로 파괴가 급속히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자연휴식년제는 탐방객의 집중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 산정상부, 계곡 또는 보호 필

요성이 있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자연을 일정기간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을 원상회복시키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도입, 시행된 제도이다. 한라산에서 등반로 휴식년제는 이런 목적과 배경에 따라 도입됐다.

한라산은 출입제한구역을 확대 또는 조정하면서 2003년말까지 12회에 걸쳐 재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4년 7월 1일부터 돈내코등산로 전 구간, 정상순환로, 남벽순환로 등 한라산 정상 일대의 대부분 등산로가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통제되고 있다.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한라산국립공원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은 윗세오름대피소에서 서북벽 정상에 이르는 서북벽등산로 1.3km를 포함하여 총 4개의 구간에 14.8km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내 등산로 42.2km의 35.1%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4개 구간의 자연휴식년제 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이다. 등산로 정비와 훼손지 복구를 목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은 대부분 해발고가 높은 아고산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상나무와 같은 키 큰 교목 및 산철쭉이나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 등 특산·희귀식물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아고산대는 희귀성, 경관, 생태적 가치 등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의 중요한 자원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고산대는 강한 바람, 집중강우, 낮은 기온 등 열악한 환경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고산대의 식물들은 인위적인 간섭에 매우 약하며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 자연휴식년제로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이들 아고산대의 식생보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무모한 간섭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교훈도 함께 던져주고 있다.

휴식년제 구간 식물상 296종... 한라산연구소 4년간 모니터링

한라산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연휴식년제 구간을 대상으로 식생과 식물상 등 기초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했다. 자연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상태와 적정기간 산정, 인위적 복원조치에 대한 시행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선행조사였다.

이 조사는 향후에 실시하게 될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의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연차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결정하고 공원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였다.

조사결과, 한라산국립공원내 6개의 등산로 중 자연휴식년제 구간에서 관찰된 식물은 모두 2백96종에 이른다. 구간별로는 돈내코등산로가 2백46종, 관음사등산로 용진각대피소~동능정상 2백46종으로 식물상이 가장 다양했다. 그러나 정상순환로에서는 1백65종이 관찰돼 상대적으로 낮은 식물상을 보였다.

또 성판악등산로의 진달래밭대피소~동능정상 2백6종, 서북벽등산로의 윗세오름대피소~서북벽정상 2백1종, 남벽등산로 1백69종 순으로 관찰됐다.

한라산연구소는 자연휴식년제 구간별 식물상의 차이는 등산로 길이 뿐만 아니라 식생구조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분포하는 특산식물은 29종, 희귀식물은 44종이 관찰됐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